

호스피스 표준화 방안

- 호스피스 케어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교육연구소

한 성 숙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활동은 1965년 갈바리의원에서 시작되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 호스피스활동이 비교적 활발해졌으며 호스피스 협회가 발족이 되었고 호스피스 교육연구소가 활약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창립되어 더욱 발전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갈바리의원의 활동을 제외한다면 거의 20여년 동안 호스피스 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호스피스 케어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에서 “호스피스케어 표준”이라는 역서를 내었으며 이것은 미국의 NHO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에서 1993년에 출판한 Standards of a Hospice Program of Care를 번역한 것이다. 내년 초에는 다시 수정보완된 ‘호스피스케어 표준’이 출판될 예정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호스피스케어 표준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1) 케어에 대한 접근, 2) 케어의 단위원 환자와 가족, 3) 호스피스 분야별 전문요원 팀, 4) 분야별 전문 팀의 케어 계획, 5) 호스피스 서비스의 범위, 6) 사별관리, 7) 호스피스 케어의 연속성과 유지, 8) 호스피스 서비스의 기록, 9) 호스피스 질평가와 개선, 10) 호스피스 운영 위원회 등이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 케어 표준이 제정되면 각 전문요원별 교육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교육이 1년 과정으로 간호사를 위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외의 교육과정의 표준화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호스피스 케어 표준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기관과 학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활동기관의 호스피스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부합되면서도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한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내용은 매년 혹은 적어도 2년에 한번 수정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하다.